

“한지로 만든 600송이 꽃 만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수수 나눔 기획전 ‘육백화’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

한지로 만든 600송이 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2024 秀手(수수) 나눔 기획전 ‘육백화’를 진행한다.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참여 공예작가의 일부 공예품을 나눔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일상의 공예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육백화’는 한지로 만든 600개의 꽃송이로, 한지의 물성과 특성을 잘 담아낸 작품이다. 무엇보다 전통한지로 연출된 한지 꽃은 그 질감과 생동감을 다채롭게 담아내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남지현 작가는 ‘한지’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현대예술로 재해석하는 한지 조형 작가로, 한국적인 미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지로 만든 600송이 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현장 관람객들에게는 섬유로 만든 ‘꽃 책갈피’를 증정하는 SNS 해시태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프로모션은 선착순 30명에게 제공되며 소진 시 조

기 마감될 수 있다.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전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는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수수 나눔 기획전’을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지역의 공예 작가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한지를 통해 현대적 예술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한국적 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유망한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1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가 주관한 ‘2023 품격있는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28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가 주관한 ‘2023 품격있는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28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촬영대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제50회 고창모양상제’와 ‘제1회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축제’ 행사를 대상으로 전국의 사진애호가들이 촬영한 작품을 출품받아 11월 25일 전문 심사위원들의 작품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장려 5점, 입선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에 선정된 경기도 김수연 작가의 ‘기쁨이’는 고창모양상제 농악놀이 곳판의 흥겨움을 잘 표현해 선정됐고, 은상에는 광주 김기호 작가의 ‘모양상야시장거리’와 제주 김형선 작

가의 ‘모양상 울타기’로 활력 넘치는 모양상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작 전시회에는 제1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회원전을 병행하여 전시함으로써 고창사진작가들의 수준 높은 사진 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박현규 지부장은 “이번 촬영대회를 통해 고창의 훌륭한 전통 문화유산과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행사를 열어 고창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홍보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국회사무처, 상호협력체계 구축 ‘맞손’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 다양화 · 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협약 체결

전주국제영화제와 국회사무처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2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국제영화제와 국회사무처와의 문화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회문화극장의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국회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의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한 우수영화 선정 및 수급과 영화 상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제공(전주국제영화제) △영화 상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영장소와 장비 제공 및 사업 홍보(국회사무처)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컬처가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양한 팬층을 만드는 만큼 K-콘텐츠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



전주국제영화제와 국회사무처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는 전주와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진 독립영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와의 협약을 통해 예술성 높은 영화를 소개할 것이며, 국민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전주국제영화제의 명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영화제의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회문화극장에서 국민의 예술적 향유를 위한 노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을 방문해 주신 전 세계의 팬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주이며, 전주국제영화제는 지속해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는 전주국제영화제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상영작을 국회문화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송년음악회 ‘추억은 몽글몽글’ 30일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12월 송년음악회 공연으로 국악과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전문 음악그룹 센티멘탈로그의 사계콘서트 ‘추억은 몽글몽글’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센티멘탈로그는 Sentimental(감성적인)과 Log(기록)가 결합된 이름으로, 동서양의 감성을 하나 된 음악으로 기록해보자는 의미에서 결성된 팀이며, 디지털 싱글앨범 ‘축제’와 2023년 싱글앨범 ‘갈까부다’, ‘달하’ 등을 발표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사계절 추억이라는 테마를 갖고 각계절과 어울리는 영화음악과 판소리 등을 판소리꾼 고승조, 건반 구국희, 아쟁 이예슬, 바이올린 신이나, 타악 권지훈, 가야금 김미정, 바리톤 조용민이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1시부터 선착순 50명의 관객에게 추억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